

## 재난의 상상력과 정동의 미적 정치\*

— 후쿠시마 이후, 환동해 시민사회의 변화에 대한 고찰

신진숙\*\*

### [초 록]

후쿠시마 재난은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환동해지역에서 핵 발전 기술의 평화적 사용을 재고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1986년 체르노빌과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기술과 정치, 사회, 자본주의 그리고 환경의 관계성에 대한 의문을 던진 사건이다. 나아가 그것은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후쿠시마 이후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에서 특정한 정동(affect)을 형성했다. 후쿠시마 정동 자체가 사건성(eventfulness)으로 생성된 과정을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성이란 사건 그 자체가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구성한 기존의 해석들을 넘어서거나 흘러넘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후쿠시마라는 사건이 물질적, 비물질적 관계들을 개혁하고 기존의 관념들을 거부하는 정

---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62-H00001).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K교수

주제어: 후쿠시마 정동, 재난의 상상력, 행성적 분위기, 정동의 정치학, 정동의 생산  
The Fukushima Affect, Imagination of Disaster, Planetary Atmosphere,  
Aesthetic Politics of Affect, Affective Production

동적 함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성은 후쿠시마 정동이 로컬과 국가, 글로벌 단위의 영토적 기획과 관점을 넘어서는 행성적(planetary) 정동의 생산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원인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정동의 방향은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후쿠시마 정동들이 국가적-지방적 재난의 감정으로 환원되거나 재코드화되는 과정도 존재한다. 이는 정동의 정치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후쿠시마에 대한 국가적 민족적 재편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후쿠시마를 미학적 대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재현되지 못한 정동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창조하는 미학적 담론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후쿠시마 이후 환동해 시민사회에서 일어난 정동적 변화와 사회적 실천들의 동인을 고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후쿠시마가 촉발한 정동의 복잡한 생성 과정을 ‘후쿠시마 정동’으로 명명하고, 문학과 다큐, 영화 등의 다양한 미학적 실천(한국과 일본)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 1. 들어가는 말

후쿠시마 재난은 전대미문의 파괴력으로 인해 그 자체를 감각할 수 있는 신체적 장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특정한 정동들을 폭발적으로 생산한 정동적 사건(affective event)이다. 그것은 후쿠시마가 경제, 사회, 정치는 물론 인문학과 사회과학, 일반적인 인식 틀과 감각 장을 넘어섬과 동시에 인류의 미래를 다시 사유하는 철학을 요청한 사건으로서 우리 눈앞에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후쿠시마는 인류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생태적 대안을 찾고 삶-체제 전체를 변혁하도록 촉구한다는 점에서 사상사적 의미를 부여받는다.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강도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7년이 흘렀다. 그러나 재

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아직도 미해결 상태이며 많은 사회, 정치, 경제, 환경 문제들이 현재에도 진행 중이거나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 당시 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된 재난의 스펙터클은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두려움을 형성했는데, 그것은 언어적 재현을 앞지르는 신체적인 변용, 즉 감수(感受)되지만 해석되기는 어려운 느낌들을 동반했다. 이미지는 전달되었으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체됐던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신체가 재난을 목도한 순간과 그것이 특정한 (설명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감정이나 정서, 언어로 질화(qualified)되는 순간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가 불러일으킨 신체적 느낌들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 지역이나 국가로 환원될 수 없는, 소유되지 않는 집합적인 분위기로 출현했다는 점일 것이다. 즉, 후쿠시마는 기존의 감각과 인식 체계 전체를 뛰어넘는 사건으로서 우리 앞에 출현한다.

이에 대해 조정환<sup>1)</sup>은 후쿠시마의 방사능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느 곳으로나 이동할 수 있고 무차별적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3.11에 대해 사유하기 어렵고 모든 인지적 프레임이 무효화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이어서 후쿠시마가 “행동의 중지만이 아니라 사유의 중지까지 강제하는 깊은 무기력의 정동<sup>2)</sup>을 산출한다”고 덧붙인다. 그것은 후쿠시마의 재난이 여느 재난과 달리 즉각적으로 가시화할 수 없는 비-스펙터클한 것일

- 
- 1) 조정환 (2012), 「인지자본주의와 재난자본주의 사이에서」,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김진호 외), 갈무리, p. 128. 조정환은 이 무기력은 스피노자가 말한 ‘행동할 능력의 감소’인 슬픔이 고조된 상태를 지칭하며, 무기력함은 우리가 생명력을 상실하고 물질화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그것은 죽음의 정치가 효과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 2) 정동(情動)은 스피노자, 니체, 베르그송, 들뢰즈, 네그리 등에 의해 발전되어온 잠재성(virtuality)의 사유를 설명하는 기본 개념으로서, affection (정서)과 구분하여 ‘비재현적 사유양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질 들뢰즈 · 서창현 · 김상운 외 (2005), 자율평론번역모임 역, 『비물질노동과 다중』. 갈무리, pp. 14-15).

뿐만 아니라 종결이 있을 수 없는 환경재난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후쿠시마를 사상적으로 가치화하려는 노력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출발하다.<sup>3)</sup>

따라서 후쿠시마가 지닌 사건성(eventfulness)을 면밀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재난이 종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후쿠시마는 지구 환경에 회복 불가능한 환경적 재앙을 초래한 불가역적인 사건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에 오염된 자연 환경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얼마일지 인간의 힘으로는 측정하기도 어렵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증명하듯, 수십 년이 지난다 해도 원전의 피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후쿠시마 재난은 거의 영구적인 지구 환경의 파괴와 변형을 가져왔다.

그런데 학자들은 후쿠시마의 사건성을 보다 근본적인 데서 찾고자 한다. 그것은 후쿠시마를 통해 드러난 세계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자연 재난의 문제로 시작되지만, 한번 시작된 재난은 결코 자연 재해로 끝나지 않는다. 모든 시스템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하나가 파괴되면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한 국가 내의 시스템 문제만으로 그치지도 않는다.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특정 국가의 위협이 한 국가 내부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축복으로 간주되어온 상호의존적인 연결성 자체가 인류를 위협하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장-뤽 낭시는 바로 이러한 점들이 후쿠시마를 철학적으로 사유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한다.

낭시<sup>4)</sup>는 이처럼 연결된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험성을 재난의 동등성

3) 쓰루미 슌스케 외(2012), 윤여일 역, 『사상으로서의 3·11』, 그린비; 한홍구·서경식·다카하시 테스야·이령경(2013), 이령경 역, 『후쿠시마 이후의 삶: 역사, 철학, 예술로 3·11 이후를 성찰하다』, 반비; 서경식 외(2016), 형진의 역, 『다시 후쿠시마를 마주한다는 것』, 반비.

(equivalence)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여기서 재난의 동등성이란 재난이 상호연결되고 얽혀 있으며, 기술들이 서로 공생(symbiosis)하며, 교환되고 이동하면서 인류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상호연결성(interconnection)을 일컫는 말이다. 낭시는 이러한 상호연결성을 자본 축적과 이익 추구가 만들어낸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로 이해하는데, 이익 추구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연결된다. 말하자면 생태, 경제, 사회정치, 이데올로기, 기술, 문화, 논리 등 모든 것 사이에 이미 복잡한 상호의존적인 시스템이 존재한다. 전기, 가솔린, 우라늄, 희귀 광물 등 한정 자원들과 함께 그것을 문화적, 군사적, 사회적,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행의 과정이 여기에 연결된다. 따라서 자연의 재난일지라도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합의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더욱이 이미 전 세계가 자본주의적 시스템으로 상호의존적으로 변한 세계에서는 특정 지역의 재난을 한 장소, 한 국가 문제로 한정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후쿠시마 재난은 자본주의 세계가 만들어낸 상호연결성이 만든 재앙이라는 규정이 가능해진다.<sup>5)</sup>

- 
- 4) Jean-Luc Nancy (2015), *After Fukushima: the equivalence of catastrophes*, Fordham University Press, pp. 3-5. 상호연결성은 부의 생산과 자기-생산에 의해 인도된 경제를 표현한다.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새로운 조건들, 규범들, 제한들이 만들어진다. 낭시는 재난의 근본 원인을 이익 추구를 위한 투자를 위해 운명 지워진 자본의 축적에 의해 생산된 과정, 즉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상호연결성에서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재난이 한번 일어나면, 모든 흐름이 필연적으로 모든 기술, 사회, 경제, 정치적 복잡성을 지닌 관계들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재난을 그것의 결과가 다소간 쉽게 한정할 수 있는 간단히 불행이나 실수라고 간주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해진다.
- 5) 이와 관련된 논의로, 1986년 체르노빌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펠릭스 가타리의 생태철학(ecosphy)을 같이 검토할 수 있다. 그는 체르노빌과 같이 현대의 재난이 복합적인 자연(환경), 사회관계, 그리고 인간 주체성의 세 가지 생태학적 작용 영역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다는 점을 성찰하고, 이 세 영역이 하나의 공통적인 미적-윤리적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한다(펠릭스 가타리(2003), 윤수중 역, 『세 가지 생태학』, 동문선).

이 때문에 후쿠시마는 그 재난의 성격 자체가 역사 속 어떤 재난과도 동일하지 않다. 낭시가 말했듯, 후쿠시마를 냉전기 핵위협으로 재현된 패러다임으로 표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후쿠시마는 이제까지 존재한 적 없던, 역사의 그 무엇과도 일치하지 않는 ‘특이성’으로 출현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후쿠시마의 사건적 의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보다 명확해진다.

한국에서 후쿠시마에 갖는 관심 역시 이러한 상호연결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후쿠시마 이후 재난의 극복을 위해 동아시아 연대를 촉구하고 초국적 환경운동과 대안 찾기가 제시되었다. 특히 후쿠시마 재난에 대한 사회적, 사상적 공명은 동해 주변의 환동해<sup>6)</sup> 시민사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류를 타고 퍼지는 방사능 물질 때문에 동해 인접 국가들은 후쿠시마 재난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동해를 면한 일본의 인접국이라는 점에서 후쿠시마 재난이 한국 시민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능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사회 전반에서 새롭게 인식된 탈핵 운동이다. 이를테면, 윤순진은 한국 환경운동이 후쿠시마 이후 반핵운동이 탈핵운동으로 내용과 방식이 변화한 상황과 시민들이 직접적인 탈핵운동의 참여 주체로 등장한 것을 후쿠시마와의 연관성 속에서 찾고 있다.<sup>7)</sup> 한국의 대표적인 원전 지역 기장에서 암에 걸린 주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환경소송이나 밀양 시민들이 송전탑 건설과 탈핵운동과 연계한 지점들은 후쿠시마 이후 가시적, 비가시적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후쿠시마

6) 현재까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환동해(環東海)지역은 동해를 둘러싼 한반도, 일본 서해안,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으로, 국가와 지방 단위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리즘적 지역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7) 윤순진(2015), 「반핵운동에서 탈핵운동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한국 탈핵운동의 변화와 과제」, 『시민사회와 NGO』 13(1), pp. 77-124.

와 한국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특정한 관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동아시아 연대를 상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후쿠시마를 단순히 국가, 또는 로컬 들 사이의 연관성으로만 축소하는 것은 낭시가 말한 재난의 상호연결성을 피상적으로만 접근한 것일 뿐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후쿠시마라는 특정 장소를 영토화(territorialization)하는 신자유주의적 문맥에서 출현하는 신보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관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자체가 지닌 사건성을 그것이 모든 인식 틀을 변형하고 새롭게 사유하도록 만드는 시대사적 요청에서 찾고자 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서 있다.

후쿠시마를 국가적, 민족적 문제로 풀이하는 시각에 저항하는 대항 논리의 생산도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후쿠시마를 재인식하고 각인하려는 지속적인 노력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제로 후쿠시마가 촉발한 정동(affect)을 정치적 목적으로 전유하고 환원시키는 다양한 정동의 정치(politics of affect)가 발생한다. 미디어 이미지를 살펴보면, 후쿠시마의 재난의 충격적 국면은 어느 순간 온정적인 휴머니즘 스토리들로 변환되고, 나아가 일본 내부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네오내셔널리즘으로 심화되어간다. 예컨대, 재건과 발전을 수사로 삼은 일본의 전후 담론과 연결된 후쿠시마 담론은 ‘일본의 재난’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복구와 건설이라는 내러티브를 구축한다. 한편 미국의 9.11과 평행하는 국가적 재난이라는 ‘안보’ 담론이 생산되는데, “9.11/3.11”이라는 명칭이 함축하는 바도 다름 아닌 이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구축된 공동체 이미지가 재난의 긴급성이 (적어도 미디어 안에서는) 사라진 후, 일본산 수산물 제재라는 ‘안전’ 문제로 좁혀져 전달되기 시작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다른 여러 나라와 달리 제재 자체가 지연되면서 방사능의 신체적 위해 논란이 더욱 가열된 양상을 띠게 된다. 이른바 재난의 정동이 만들어낸 특이성과 가능성은 국가 또는 지역의 안보와 안전의 논리로 변형, 축소된다.

이러한 정동의 정치가 말해주는 것은 정동 자체의 미결정성과 모호성이 언제든지 쉽게 정치적 맥락들에 사로잡혀 재편 또는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마수미는 재난을 국가 안보 위협(정동적 사실)과 실제 재난 사이에 형성된 관계성으로 이해한다. 정동적 사실로서의 재난은 미디어에서 추동되는 약하고 개인적인 인간이라는 스케일로 회귀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재난과 국가 안보가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다양한 정동적 논리를 통해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사회 전반에 깔린 재난의 정동들을 포위하여 국가 안보 강화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대안으로 출현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적인 집합적 행동은 점점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수미의 시각이다.<sup>8)</sup> 후쿠시마 이후 일본 내 이른바 평화헌법과 자위대 관련 법안의 개정 노력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마수미는 이러한 정동의 정치와 동시에 새로운 변혁의 가능성이 출현하는 재난-정동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에 의하면, 삶을 변혁하는 정치는 정동을 변화시키는 대안적 정치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결국 감각적 감수 능력과 감응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변혁적, 긍정적 정동들을 생산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동일화될 수 없는 이질적인 정동의 역량(capacity)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미학적 실천은 바로 이러한 정동의 역량을 새롭게 창조하는 대안적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후쿠시마와 거기에서 발산된 정동적 흐름들에 주목한다.<sup>9)</sup> 후쿠시마를 정치화하는 미디어가 양산하는 ‘안전’과 ‘안보’ 담론들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다르게’ 생산되는 정동들을 살

8) Brian Massumi (2011), “Disasters and Extreme Weather Opinion: The Half-life of Disaster”, *The Guardian*, accessed on 2018. 3. 31.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1/apr/15/half-life-of-disaster>.

9) 이 글에서는 다양한 후쿠시마라는 장소, 느낌, 기호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체적 감응들을 ‘후쿠시마 정동’이라고 규정하고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질성으로서의 정동들이 어떻게 안보와 안전 담론들을 둘러싼 국가적, 민족적 담론들을 가로질러 새로운 전지구적인 행성적 분위기로 생성되는지(becoming)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정동과 미학적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정동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 2. 정동과 미학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재난의 스펙터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따뜻한 인간적 온정적 프레임으로 변화하면서 정동적 흐름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충격적인 재난의 이미지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인식론적 프레임 속에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충격과 공포를 동반한 정동들이 다른 감정 속에 흡수되고, 마침내 재난의 정동들은 다양한 담론들과 결합하면서 흔적들이 되어갔다. 그것은 정동들이 특정한 주체들과 결합되어 서사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형은 이른바 후쿠시마 사건이 생성시킨 집합적인 감정이 연대기적 시간을 따라 변화한 것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사화의 과정에서 후쿠시마가 특이한 정동적 분위기로 재생산되는 과정도 함께 존재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동의 복잡성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후쿠시마 정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미학적 관점에서 재현된 정동의 의미에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미학적 실천은 후쿠시마의 의미를 규정함과 동시에 새롭게 생산하는 하나의 의미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정동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가능해진다.<sup>10)</sup> 브

10) 정동은 규합할 수 있는 합일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다양한 흐름과 경향들이 존재할 뿐, 논의는 각각의 시각과 논리적 경로에 따라 성격을 달리한다. 나이절 스리프트는 정동 개념을 네 가지 관점에서 정리한다. 첫째, 현상화

라이언 마수미<sup>11)</sup>는 「정동의 자율성(the Autonomy of Affect)」에서 정동을 ‘열림’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그는 정동이 특정한 신체나 주체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으로부터 달아난다고 표현한다. 즉, 정동은 비결정적이고 미정형적인 그러므로 지각할 수 없는 잠재성의 역량을 의미한다. 만일 정동이 형식을 갖추고, 질화되고, 적응되었다면 그것은 정동을 포섭하여 가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동은 그야말로 속도와 지속 등과 같은 강도(intensity)적 표현으로만 존재한다. 감정이란 바로 이러한 정동들이 집적된 가장 큰 강도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은 정동이 질(quality)을 지니게 되는 현상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감정으로 질화된 정동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완전히 포섭될 수 없

---

적인 전통과 사회적 상호작용과 해석학의 관점으로, 일련의 신체화된 실천을 의미한다. 미학적이고 표현적 느낌과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심리학적 프레임에서 충동의 관념을 토대로, 예를 들면 섹슈얼리티와 리비도, 욕망 등을 인간의 정체성과 동기화의 근원으로 규정하는 시각이다. 정동을 욕구로 환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셋째, 되기(becoming)로서의 세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역량으로 정동을 파악하는 스피노자-데뢰즈 철학적 관점이 있다. 넷째, 다위니즘에서 말하는 정동으로, 보편적이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감정의 표현을 이해하는 시각이다. 브라이언 마수미는 셋째, 스피노자-데뢰즈의 정동 개념을 발전시켜 감정과 구분되는 정동의 자율성을 논리화한다(Nigel Thrift (2004), “Intensities of Feeling: Towards a Spatial Politics of Affect”,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86(1), pp. 57-78).

- 11) Brian Massumi (2002), “The Autonomy of Affect”, *Parables for the virtual : movement, affect, sensation*, Durham, NC : Duke University Pres. 정동은 감정과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감정은 주체적인 내용이다. 경험의 질을 사회언어학적인 것으로 고정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것으로 재현하는 것으로서 감정은 질화된 강도를 의미한다. 반면, 정동은 운동과 쉼, 느낌과 빠름으로 드러나는 강도(intensity)로서, 의식 바깥의 신체의 자동적인 반응이다. 따라서 정동과 감정을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마수미에게 정동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뿌리를 둔 잠재적이면서도 종합적 관점이다. 강도를 기호적인 형식, 서사적인 작용 반작용 회로, 기능과 의미 등으로 주장하는 공통의 지점이 감정이다. 소유되고 인식된 강도, 그것이 감정이다. 정동이 만일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것은 질화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는 어떤 것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정동이 어떤 특정한 존재의 것으로 실재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정동이 일어나는 사물들에서 분리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동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동은 사로잡히는 순간 다시 달아난다.<sup>12)</sup>

예를 들면, 어떤 고유한 정동이 후쿠시마 사건을 통해 처음 출현할 때, 그것은 충격적인 느낌으로 발현한다. 분노와 공포, 두려움과 같은 특정한 감정들로 질화된 후, 그리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 서사와 결합하면서 서사화된 후까지도, 애초의 정동들은 재현이 불가능한 신체적 느낌으로 남아 있었다. 즉, 서사화 과정이 진행된 후에도 재현할 수 없는 정동들은 여전히 존재했는데,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정동적 우울과 같이 것이 사라지지 않고 잔존했다. 후쿠시마 정동은 말하자면 일관된 서사와 결합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서사를 일탈하는 잡음(noise)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한편 마수미는 집합적인 정동이 발생하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해 “차이들의 조음(differential attunement)”이라는 관점을 내세운다. 그것은 개인을 넘어 집합적으로 생산되는 정동적 신체화 과정으로서 즉각적이고 집합적인 신체적 감응에서 출발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정동들은 서사화되고, 어떤 것들은 누락되는데, 마수미가 강조하는 것은 후자다. 즉, 정동적 차이들에 주목하는 것인데, 이는 차이들이 동일화하지 않으면서 공존하는 감응적 상태를 의미한다.<sup>13)</sup>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집합적인 신체적 감응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정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수미는 이를 정동적 사건으로 표현하는데, 사건으로서의 정

12) Brian Massumi (2002), Ibid. pp. 35-36.

13) Brian Massumi (2015), “Affective Attunement in field of Catastrophe”, *Politics of Affect*, Wiley Academic (e-book), 53-54%. 집합적 정동적 감응은 미리 하나의 개념이나 주체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응의 강도를 붙잡으면서 창의적으로 공명하고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공조하면서 형성된다.

동적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특이성이 출현(창발)한다는 것을 말하려 한다.<sup>14)</sup> 마수미가 잠재성을 정동의 역량으로 표시하는 잠재성의 도상학(a cartography of potential)을 논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수미의 논의는 들뢰즈가 말한 정동의 잠재성과 그 맥을 같이하면서, 이를 보다 구체화해 나간다.

사실, 재난의 장소는 정동의 차이들이 서로 공명하면서 새로운 정동적 정치가 출현하는 전형적인 장소이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를 둘러싸고 형성된 지배 담론은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을 둔 후쿠시마 재건 내러티브와 연동되는 것이었는데,<sup>15)</sup> 이는 후쿠시마의 정동을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재편한 결과이다. 또 한편에서는, 이에 대항하는 생태적이고 근본적인 저항적인 실천 혹은 실험들도 모습을 드러낸다. 후쿠시마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행성적 분위기도 그중 하나이다. 행성적 분위기관 재난을 후쿠시마 지역에 한정하거나 일본이라는 국가의 문제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특정한 어떤 결정적 재현으로 안착되지 않는다. 모호성 가운데 존재하는 그것은, 후쿠시마라는 기호 혹은 장소 속에 점착되고 집적된 집합적인 정동적 분위기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후쿠시마라는 ‘기호’ 혹은 ‘장소’와 연결하여 다양한 이질적인 정동들이 생산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행성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후쿠시마화하거나 일본화하려는 정동의 정치와 이에 대항하는 지구적이고 행성적인 차원의 정동이 재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정동의 복잡한 흐름들은 마수

14) Brian Massumi (2002), “The Autonomy of Affect”, *Parables for the virtual: movement, affect, sensation*, Durham, NC : Duke University Pres, p. 27.

15) 이러한 논리는 후쿠시마의 사건성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후쿠시마를 이미 잘 알려진 전후 담론(재건과 발전) 속에 그것을 재기입함으로써 후쿠시마의 사건적 의미를 닫히고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 한정하려는 관점이다. Christophe Thouny (2017), “Planetary Atmosphere of Fukushima: Introduction”, *Planetary Atmospheres and Urban Society After Fukushima* (Thouny, Christophe · Yoshimoto, Mitsuhiro Eds.), Palgrave Macmillan, p. 2.

미가 말한 정동의 대안-정치이며, 정동의 잠재적 역량이다.

물론 이러한 행성적 분위기 속에서 생성된 후쿠시마 정동이란 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정동은 의미를 구현한 특정 사물을 찾기 까지 끊임없이 이동하고, 진동하고, 공명하면서, 특정한 서사 바깥으로 흘러넘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동의 역량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물론 하나의 근원으로 축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동하고 (affect)/정동되는(be affected) 신체의 역량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후쿠시마를 느낄 수 있는 신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 미학적 감각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실제로 미학적 정동 속에는 기존의 언어로는 재현할 수 없는 느낌들이 살아남아 이미 형성된 감정들과 의미들, 가치들의 체계로부터 탈구된 상태로 존재하곤 한다. 이러한 재현 불가능한 느낌들은 미학적 형식 속에 하나의 분위기로 남겨지는데, 미학적 실천은 이러한 정동들을 창조적으로 다시 열어놓는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미학적 대상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정동적 분위기란 무슨 의미인가. 미켈 뒤프렌느(Mikel Dufrenne)<sup>16)</sup>에 따르면, 미학적인 대상이 만들어내는 정동적 분위기의 특별한 동학이 존재한다. 미학적인 대상이란 다양한 감각적인 요소들이 융합하여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특이한 정동적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뒤프렌느는 정동적 분위기를 신체적 느낌과 감정을 동반하면서 다양한 정동들의 마주침 속에서 공명하고 서로 간섭되고 긴장하면서 질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가 기호로 번역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발생하는 느낌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미학적 대상 자체가 방출하는 것인 동시에 공명하면서 만들어지는 특이한 정동적 질(affective qualities)이다. 따라서 정동적 분위기는 사물 그 자체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16) Ben Anderson (2009), "Affective atmospheres", *Emotion, Space and Society* 2-2, p. 79.

이 점에서 미학적 정동은 개인 혹은 사물 안에서 구체화되는 집합적인 의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미학이 지닌 잠재적 역량이 발견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즉, 뒤프렌느는 이러한 미학적 대상들을 통해 표현된 강도적 공간과 시간들에 주목한다. 그것은 모호하고 열린 시공간으로서, 거기에는 미학적 재현이 사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화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느낌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쿠시마를 촬영한 사진들에서, 수용자들은 이 텅 빈 공간에 특별한 느낌으로 정동된다. 두려움과 불안, 공포 등 특정한 감정들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이질적인 충격적인 정동들이 함께 존재한다. 그것은 미학적 대상으로 구성된 후쿠시마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정동의 생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후쿠시마 정동이라는 고유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후쿠시마는 어떤 모호함 가운데, 미학적 실천이 만들어내는 특이한 강도적인(intensive) 시공간으로 창조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완료되지 않는 열림과 의미의 모호함이야말로 후쿠시마를 ‘사건성’으로 구성하는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다양한 미학적 실천으로서 정동적 실천은 정치적인 것의 장소와 기호들을 변화시킨다. 정치적인 것의 장소를 재정의하고 새로운 종류의 지식과 실천을 만들어냄으로써, 일상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조작되는 정동의 정치에 대항한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미학적 실천과 정동의 정치가 만나는 후쿠시마의 의미들을 탐색함으로써, 사건성으로서의 후쿠시마의 본질을 성찰해 보고자 한다.<sup>17)</sup>

다음 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에서 ‘후쿠시마’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발생한 다양한 미학적 실천(실험)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

17) 하지만 기존의 논의들은 이러한 정동적 분위기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예가 희소하다. 정동적 생산이라는 관점으로 후쿠시마를 들여다보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볼 계획이다.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굳이 구분하지 않으면서 접근하려 한다. 이 글의 모든 분석은 다양한 정동적 분위기로 재구성되는 ‘후쿠시마’ 정동이 지닌 윤리적-미학적-정치적 의미들을 재검토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sup>18)</sup>

### 3. 후쿠시마의 사건성과 정동의 미학적 생산: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3.1. 재난과 정동의 생산

미학적 실천이란 일종의 정동적 등록(affective register)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분명한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가해한 것을 친근한 것으로 재현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정동의 복잡성을 기존의 의미들과 연결하면서 풀어가는 고유한 수행 과정을 지닌다. 기실 일상적 삶 속에서도 이러한 정동적 등록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재난적 사건은 바로 이러한 일상적 등록 경로들을 차단하면서 출현한다. 즉, 사건으로서의 재난은 정동적 등록 자체를 복잡하게 만드는 탈구적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언어적으로 복사하거나 반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이 생산하는 이질적인 다양성과 가능성들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창

18) 이 글에서는 후쿠시마 이후 발표된 일본과 한국의 작품들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일본: 나카무라 마유 감독 《나 홀로, 후쿠시마(ナオトひとりっきり)》(2014), 텐노 아라타의 소설 『문나이트 다이버』(2017); 소노 시온 감독의 《희망의 나라(希望の国)》(2012), 쓰시마 유코의 소설 「불곰의 조용한 바다」(2011), 이와이 슌지 감독의 《311: 이와이 슌지와 친구들》(2011); 히로비 가와카미의 소설 「神様 2011」(2012). 한국: 박솔피 소설집 『겨울의 눈빛』(2017), 박정우 감독의 《판도라》(2016), 이흥기 감독의 《후쿠시마의 미래》(2015), 홍진희의 사진들(2015), 정주하의 사진들(2016)(한국 작품은 후쿠시마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작가(감독)가 밝힌 경우에 한정했다).

조적 개입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후쿠시마라는 특이성의 사건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실패와 함께 시작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후쿠시마를 일상적인 삶 속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일상적인 삶의 문맥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언어와 의미, 가치들이 존재해야 하는데, 사건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일상적인 의미화 과정을 중지시키고 출현한다. 따라서 후쿠시마 정동의 의미화 과정은 처음부터 그것의 불가능과 무기력감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불능의 상황은 일본 작가인 사사키 아타루가 후쿠시마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사건을 이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토로할 때 여실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사사키는 말하길, 사건 자체와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sup>19)</sup> 즉, (재난을) 쓸 수 없음(불가능성)과 써야 한다(가능성)는 행위 사이의 모순된 감정이 충돌한다. 역설적으로 그것은 후쿠시마가 지닌 ‘사건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일본 작가들의 작품들이 그러하듯, 쓰시마 유코의 「불곰의 조용한 바다」<sup>20)</sup>에서도 이러한 모순된 감정과 함께 미학적 재현의 불가능과, 거기에서 오는 무기력감이 동시에 발견된다.

텔레비전 화면은 쓰나미 패해와 방사능의 위협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몸을 의탁하게 된 어딘가의 피난소의 모습을 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천장이 높은 어느 학교의 체육관이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면서 느닷없는 피난의 의미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해져 있었다. 텔레비전 카메라가 그곳을 파고들었다. 마이크를 들어대자 부르릉 하게 대충 몇 마디를 중얼거리는 사람, 사람. 주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그 텔

19) 사사키 아타루(2012), 「부서진 대지에, 하나의 장소를」, 『사상으로서의 3·11』(쓰루미 슌스케 외, 윤여일 역), 그린비, pp. 44-47.

20) 쓰시마 유코(2011), 양윤옥 역, 『자음과 모음』 14.

레비전 화면 안에서 여진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슬렁거리고 화면이 옆으로 흔들렸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쪽도 똑같은 여진으로 흔들렸다.

재난으로 인해 안정된 삶의 지평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진을 감수하는 신체에 일어난 멈추지 않는 ‘흔들림’이 묘사되는데, 이는 그 자체로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재난의 정동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내부에서 만들어낸 정동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특정한 감정이나 언어로 재현되기 어려우며, 단지 끊임없이 지속되는 ‘흔들림’으로서만 표현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의미로 전달되기 이전의 순수한 정동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순수한 정동 상태는 “피난”의 의미조차 파악하기 힘든, 의미와 무의미 자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생명 그 자체만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이러한 순수한 몸의 ‘흔들림’은 특정한 개인의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후쿠시마 정동은 그것이 언어로 재현되지 못하는 상태로 드러난다. 이러한 현상은 재난 직후의 미학적 재현 속에서는 더욱 현저하다. 그것은 재난의 즉각성과 긴급성이 존재했던 일본이 한국에서보다 더 구체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이러한 즉각적 정동화 과정이 느리게 나타난다. 재난 직후, 일본이 느낀 재난의 충격은 특정한 감정으로도 질화되지 못한 채 드러나는데, 사람들의 느낌이 “애초에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부터 무슨 겨울엔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소리”로만 기록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신체적 변이의 공통성이다. 즉, 텔레비전의 안과 밖, 그러니까 피난한 사람들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그것을 카메라도 담아내고 있는 사람 모두 ‘흔들림’을 경험한다. 이들 모두 자신의 신체적 느낌과 변화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것은 후쿠시마 정동의 본질적 차원, 즉 인격적인 성격을 넘어서는 집합적인 신체 안에 공명하고 있는 느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후쿠시마 정동

의 출발점, 즉 재난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재난의 주체는 특정한 개인 혹은 장소로 환원되지 않는 집합적 경험 속에서 출현한다. 재난은, 재난의 파괴성을 정동된 모든 신체들에 각 인하면서 출현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재난을 외주화할 수 있는 의식적인 경계 또한 지워버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재난의 가공할 파괴적인 힘은 삶의 모든 장소, 살아 있는 모든 신체 안에 이미 내재한다. 그것은 방사능에 의한 재난, 무색무취의 방사능을 스펙터클로 재현할 수 없는 후쿠시마 재난의 본질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작가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거대한 흔들림”이자 “소용돌이”라고 표현한다.<sup>21)</sup> 그 결과, 후쿠시마 정동은 특정한 의미체계에 등록됨과 동시에 누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와카미 히로미의 소설 「신(神様) 2011」(2011)<sup>22)</sup>은 후쿠시마 정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이 소설은 작가가 1993년에 발표한 동일 제목의 소설을 개작했기 때문에<sup>23)</sup> 재난 전후의 정동의 변화를 비교하기 적합하다. 말하자면 원작에서는 고탄의 초대를 받아 강까지 걸어가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돌아오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

21)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쓰나미의 공포감이 기억과 현실이 뒤섞이고 소용돌이치며 혼란에 빠져 있었다. 나아가 텔레비전 화면 안에도 밖에도 여진의 거대한 흔들림이 이어졌다. 방사능 오염이 확대되어 그에 대한 파폭 대책이 보도되고 있었다. 창문을 열지 말고 에어컨도 켜지 마라. 외출할 때는 천을 댄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려라.” “거기에는 불온한 조용함이 있었다. 그것은 백 년 후 인간들이 맛보게 될 방사능 오염의 조용한 두려움과 비슷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쓰시마 유코(2011), 양윤옥 역, 『자음과 모음』 14).

22) Kawakami Hiromi (2012), Ted Goossen & Motoyuki Shibata trans., *God Bless You, 2011*, Granta 118: Exit Strategies (The Online Edition). [川上弘美 (2011), 『神様 2011』, Tōkyō Kōdansha.] <https://granta.com/god-bless-you-2011>.

23) 가와카미 히로미는 개작의 이유에 대해 “나는 설교단에 서려는 것도 아니고 원자력의 위험에 대해 설교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나의 놀라움을 표현하려는 것이었다.” 고 말한다. 작가는 이어서 이 놀라움이 사건 없이 매일의 일상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극적으로 변해버린 세계에 대한 놀라움이라고 적고 있다(Kawakami Hiromi, *Ibid.*).

다. 숲속 길과 강물, 그리고 그 속을 느긋하게 산책하는 곰과 나는 그야말로 하나의 유기체적 관계로 존재한다. 그런 풍경 속에서는 어떤 낯선 감정도 금세 아름다운 것으로 변형된다. 그런데 숲속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세계에서, 이러한 소설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숲의 신과 나 사이에는 어떠한 교감도 불가능하다. 우선 곰의 초대를 받아 찾아간 강물은 이미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곰이 선물한 소금에 절인 물고기 역시 오염된 선물이다. 무엇보다 어떤 신체적인 접촉 자체가 꺼려지는 상황으로 변해버린다. 하나의 신체와 다른 신체 ‘사이에는’ 방사능이 존재한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접촉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연으로 표상되는 곰과 나 사이에 형성된 아름다운 기억들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방사능이 특정한 신체에 불러일으킨 감정은 특정한 감정 이상의 것으로 존재한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맺어온 모든 관계성,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관계성이 파괴된다. 특히 곰신이, 자신을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달리, 자기 역시 두렵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후쿠시마 재난은 우주 전체를 파괴하는 사건으로 기록된다. 재난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유지되던 가장 아름답고 원초적인 법칙을 폭력적으로 파괴한 것이다.

이러한 파괴의 본질은 재난이 시간적인 것으로 드러날 때 더욱 명확해진다. 작가는 개작 과정에서 강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면을 삭제한다. 아이들은 더 이상 숲을 찾지 않는다. 방사능에 오염된 숲에서 사라진 것은 바로 이 아이들과 아이들의 미래임을 암시한다.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진 숲속의 고요는 모든 생명, 모든 우주의 미래가 파괴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학적 재현은 다른 방식의 재현들보다 더 고유한 방식으로 정동의 생산을 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재난의 스펙터클을 넘어서, 재난의 상상력은 재난의 본질적 의미를 직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미학적으로 구성된 정동적 분위

기는 단순히 그것이 사건의 재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후쿠시마 정동은 그 자체로 생태철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미학적-윤리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 3.2. 재난의 영토화와 탈영토화

앞서 살펴본 생태철학적인 관점과 거기서 구성되는 미학적-윤리적 차원은 인간과 비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자체를 무화시키는 재난이라는 의미에 맞닿아 있다. 그것은 재난을 영토적인 경계들을 벗어나 있는 것으로 재현한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대지,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은 재난 앞에서 모두 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생태주의적 인식과 결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주의적 인식은 재난이라는 사건을 통해 거대한 생명공동체의 공통성을 다시 회복하는 철학적 전환을 촉구한다.

물론 이러한 철학적 추상이 도달하는 방식은 미학적 고유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동적 전환을 통해서라는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지진이나 방사능 오염에 정동된/감염된 신체들 사이의 교감과 공명이 존재하며, 이러한 신체적 공명이야말로 새로운 대안적 정치의 주체를 상상하도록 만드는 기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후쿠시마’라는 기호 자체를 공통적인 것(the common)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네그리와 하트는 ‘정동’을 공통적인 것<sup>24)</sup>으로 규정하는데,

24)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2014), 정남영·윤영광 역, 『공통체』, 사월의 책, p. 16. ‘공통적인 것’은 물질적인 공통적 부(공기, 물, 땅의 결실을 비롯한 자연이 주는 모든 것), 사회적 생산의 결과물 중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차후의 생산에 필요한 것들(지식, 언어, -코드, 정보- 정동 등) 모두를 일컫는다. 공통적인 것을 이렇게 보는 입장은 인간을 자연과 분리된 위치에 놓지 않으며, 공통적 세계에서의 상호작용, 돌봄, 공생에 초점을 맞추고 공통적인 것의 이로운 형태들을 장려하며, 해로운 형태들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구화 시대에는 생태적 차원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본 이 두 가지 형태의 공통적인 것을 유지, 생산, 분배하는 문제가 점점 더 중심이 되어간다는 논리이다.

공통적인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대안적 주체들이 태어난다는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이처럼 공통적인 것으로 구성된 그러나 모호한 상태의 후쿠시마 정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감정들로 포섭되어간다. 그것은 특정한 장소와 인간이 맺는 관계로 회귀하는데 재난의 영토성(territory)을 분명히 하면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는 후쿠시마 재난 당시 그 여파로 ‘기즈나’(縁, 인연)라는 말이 등장한다. 재난을 당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 사이를 연결하고, 재난 지역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이 말은 가족과 공동체와의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도 있지만, 재난으로 분열된 일본을 통합하기 위한 장치로도 사용된다.<sup>25)</sup> 그런데 일본 내부를 연결하는 담론은 동시에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담론들과 중첩된다. 즉, 국민과 비국민의 담론이 대표적이다. 국가에서 발표한 안전성 검사를 믿지 않으면 배신자, 즉 비국민(Hikokumin, 非国民)으로 불리는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분명해진다.<sup>26)</sup> 이는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붙였던 이름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불응하여 고향을 떠나는 것은 정부의 안보에 의문을

25) R. Shindo (2015) “Enacting citizenship in a post-disaster situation: the response to the 20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Citizenship Studies* 19(1), p. 17. 재난 후 가장 많이 등장한 일본 내 슬로건을 살펴보면, 당시 이러한 통합론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Ganbarou Nippon (カンパロウ 日本 Let’s hang on, Japan!), Kokoro wo hitosu ni. Ganbarou Nippon! (心を一つに. カンパロウ 日本 Japan, Let’s unite our hearts and hang on!), Tsunageyou Nippon (繋げよう 日本 Let’s connect Japan), Hittosu ni narou Nippon (一つになろう 日本 Japan, Let’s unite as one).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슬로건들이 일본의 전후의 슬로건 Likuni tsukurou, nando demo (Ley’s re-build a good country, many times)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에 대해 전후담론과 후쿠시마 담론 사이에 존재하는 접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6) Shind R. (2015), *Ibid.*, p. 19. 재인용.

제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고향이라는 관념에 대해 불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sup>27)</sup>

이러한 안과 밖의 논리는 시민과 비시민(non/anti-citizen)의 이분법적 분할로 재코드화된다. 즉, 재해복구 과정에서 일본인이라는 국민적 통합을 구성하는 논리로 작동한 연대의 논리가 새로운 민족주의적 담론으로 전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동시에 고향(furusato), 즉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형성된 고유한 정동의 흐름으로서, 정동의 영토화라는 정동의 정치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 정동이 변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재난 직후의 긴급성에서 벗어나자 후쿠시마 정동은 특정한 정동의 정치로 호명되고 포위되어 간다. 물론 그것은 재현할 수 없는 정동들을 특정한 감정들, 이를테면 민족애, 애향심, 휴머니즘적 감정 등으로 질화(qualify)하는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러한 정동의 정치는 재난 지역을 정동의 영토화라는 관점에서 미학적으로 재구성한다. 일본에서 제작된 다양한 재현물들이 대부분 ‘고향’의 의미를 강조하는 근원적 배경도 이러한 사정과 관련이 깊다. 이런 맥락에서 텐도 아라타의 소설 『문나이트 다이버』(2016)<sup>28)</sup>를 우선 살펴볼 수 있다. 이 소설은 발표된 지 1년 후 한국에서도 번역된 작품이다. 후쿠시마를 배경으로 생존자들이 윤리적인 책임 속에서 죽은 자를 기억하고 동시에 삶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 죽은 자를 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다. 애도의 방식은 쓰나미에 휩쓸려 바다에 잠겨버린 삶의 잔해들을 건져 올려 생존자에게 되돌려주는 일을 통해 진행된다. 주인공

27) 이러한 이분법적 시선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더욱 가혹하게 적용된다. 즉, 재난이 일본을 진정한 고향(집)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라는 생각이 자리매김되는 데, 이들을 전쟁 시기 등장했던 外人(gai-jin)이라는 말을 변형해 fly-jin이라고 부른다(R. Shindo (2015), Ibid., p. 19).

28) 텐도 아라타 (2017), 송태욱 역, 『문나이트 다이버』, 현대문학.

이 죽음의 바다에서 죽음과 가까운 잠수의 고통을 견디고 사라진 존재들을 호명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생존자의 윤리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상실했던 생의 의미를 서서히 되찾아간다. 그것은 아마도 이 소설이 재난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난 시점을 소설의 시간적 배경으로 삼은 것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적 행위의 기저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죄의식’이다. 죄의식이라는 말은 ‘살아 있음’ 자체가 죽은 자에 대한 죄스러움이자 양심의 가책이 되는 논리이다.<sup>29)</sup> 물론 이러한 죄의식의 근원은 희생된 사람이 곧 나의 형제이자 가족이라는 보다 확대된 논리로 흡수된다.<sup>30)</sup> 삶과 죽음의 관계는 이러한 윤리적 관계의 회복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다. 작가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금지구역을 ‘빛의 구역’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서 발견된다. 윤리적 관계의 강화는 죽음의 정동이 생의 정동으로 변화되도록 만드는 진정한 동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삶과 죽음 사이의 내러티브를, 일본이라는 국가, 도호쿠라는 지역, 후쿠시마라는 장소 사이의 연대를 구성하는 정동의 정치와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이 사실은 우리의 고향이며, 이 고향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러한 시각이 전면화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족과 고향이라는 연결이 가져올 최종점은 결국 일본인과 일본이라는 연결점이며, 이는 재난이 다른 나라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일본/일본인의 것이라는 시각으로 환원된다.

다음은 주인공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29) 주인공 슈샤쿠는 생존이 죽은 자의 희생 위에 가능했다는 논리의 구성을 통해, 삶과 죽음을 연결 짓는다. “지금 아내는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죄스러움을 느끼며, 사실상 있는지 어떤지 모르는 상대를 향해 마음속으로 감사의 말을 외치고 있을 것이다.”(텐도 아라타(2017), 위의 글, pp. 305-306).

30) 작가의 생각은 슬픔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유대감”이 존재한다고 표현한 데서 잘 드러난다.

아름다운 추억만 있는 게 아니야, 슬픈 추억도 있지, 하지만 슬프게 보여도 역시 소중한 추억이야, 둘도 없이 소중한 거라는 걸…… [중략]…… 바다의 숲으로 가려고 하지. 그곳이 고향처럼 여겨져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고향인 바다는 죽은 자들의 바다인 동시에 주인공의 삶의 원인이 공간이다. 후쿠시마라는 재난 지역을 ‘고향’으로 호명하는 이러한 미학적 재현은 그 자체로 인도주의적인 시선임과 동시에 생존자의 윤리를 표상한다. 그것은 재난 직후의 혼돈에 가까운 정동들이 일정한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 일관된 정동의 논리로 발전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연대적 감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동일성은 다른 의미에서 영토 내의 모든 차이들이 사라지게 만든다. 이는 후쿠시마 정동의 가장 전형적인 발전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31)</sup>

한편 이러한 논리는, 원전폭발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재난영화 《판도라》(감독: 박정우, 2016)에서도 발견된다. 후쿠시마 재난과의 연관성을 지닌 이 영화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국가와 민족, 가족을 구해줄 지원자를 찾는 대통령의 담화에서 보듯, 중요한 것은 재난이 일어난 장소의 영토성이다. 재난 속에서 강화되는 민족주의인 재난 민족주의는 내러티브를 통해 특정한 정동의 정치로 자리매김된다.

그런데 후쿠시마를 서사화하지 않은 채 풍경 자체를 보여주는/드러내는 사진들은 이와는 다른 의미에서 영토적인 함의들을 떠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홍진원과 정주하 작가들의 후쿠시마 연작들<sup>32)</sup>에서

31) 나가무라 마유 감독의 다큐 영화 《나 홀로, 후쿠시마(ナオトひとりっきり)》에서도 이러한 산자의 윤리적 책무감이 바탕이 되고 있다. 방사능 피폭을 무릅쓰고 주인공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가축들과 동물들을 돌보는 것은 그곳이 그의 고향이기 때문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

32) 홍진원(2015), 「제주, 오키나와, 밀양 그리고 후쿠시마」, 『황해문화』 86. [《붉은,

는 후쿠시마의 장소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것이 지닌 국가적, 민족적 영토성을 해체시키는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 과정이 발생한다. 이들이 찍은 후쿠시마 재난 지역의 사진들은 그야말로 ‘텅 빈 공간’ 그 자체이다. 만일 방사능 오염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는 목가적인 전원 풍경으로도 읽힐 수 있다.<sup>33)</sup> 방사능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후쿠시마라는 장소에 가 있는 작가의 신체 자체가 실제의 후쿠시마와 접촉된 지점들에서 재난이 드러난다.<sup>34)</sup>

그런데 이처럼 재현이 불가능한 지점에서 특별한 정동적 분위기 생성된다. 정주하의 사진전에 참가한 일본인들 대부분, 이 사진들이 담아내는 풍경의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 방사능-재난을 발견하는 순간, 미적 충격을 받는다고 고백한다. 사진과 이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정한 이질적인 정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미학적 재현을 통해 새롭게 생성된 특이한 정동적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텅 빈 아름다운 후쿠시마의 숲과 나무, 해변 풍경이 특별한 미학적 대상으로 포착되는 순간, 이 사물들 위로 어떤 정동적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그것은 삶의 장소들처럼 느껴진 그 장소들이 죽음의 장소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가령 정주하의 후쿠시마 현에서 바라보는 지평선과 그 위로 드리운 파란 하늘, 그리고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새들의 모습이 담긴 풍경([사진 1])<sup>35)</sup>은 그야말로 텅 빈 풍경이다. 자연상태의 평온한 초원과 산, 점점이 보이는 마을과 새들 이외에, 풍경 속에는 아무 것도 없다. 역설적인 것은 이처럼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풍경이 만드는 재난의 사실성이다. 직접적

초록. 2012-2014》([http://jinhwon.com/work\\_02.php](http://jinhwon.com/work_02.php)); 정주하 (2016),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후쿠시마》, 『다시 후쿠시마를 마주한다는 것』(서경식 외, 형진의 역), 반비.

33) 서경식 외, 형진의 역 『다시 후쿠시마를 마주한다는 것』, 반비.

34) 조선령(2014), 「후쿠시마, 고리: 이미지와 가시성의 정치학」, 『문화과학』 79.

35) 사진의 일련번호는 필자가 편의상 부여한 번호이다. 사진들은 이 글 맨 뒤에 별도로 첨부하였다.

인 재난의 내러티브를 억제하고 있음으로써 더 강렬하게 후쿠시마의 실존을 통감하도록 만든다. 그것은 정주하뿐 아니라 후쿠시마를 찍은 사진들이 지니게 되는 보편적 역설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재난의 사건성이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재난의 지속이라는 느낌과 함께 출현하는 잠재성을 의미한다. 재난은 사라지지 않고 삶의 장소였던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것이며, 그것은 시간이 소멸된 장소의 영원성으로 각인된다.<sup>36)</sup> 이는 미적 경험의 차원에서 강도적 시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이미 안정화된 후쿠시마 내러티브에 균열을 내는 지점들로 작동한다.

한편 홍진원은 후쿠시마와 밀양, 제주, 그리고 오키나와를 연결하는 사진들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후쿠시마 재난의 영토성을 해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sup>37)</sup>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 현장에 경찰이 떨어뜨리고 간 방패([사진 2])와 주인이 떠난 폐허가 된 집터에서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풍경([사진 3])을 겹쳐놓은 것에서 보듯, 홍진원은 감각과 인지 사이의 불일치를 통해 후쿠시마가 일

---

36) 이러한 미래의 부재는 과거의 모든 삶을 이러한 부재의 징조로 구성하는 시간적 재현 논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도 요구된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개최된 정주하의 사진전에서 사회를 본 재일교포 학자 서경식은 이렇게 말한다. “이 도호쿠라는 장소, 후쿠시마라는 장소, 오다카라는 장소에 뿌리내린 사람들이, 이미 사태 이전부터 느끼고 있던 ‘징조’”라고 말한 대목도 그러한 생각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37) 홍진원은 이러한 사진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 네 곳을 떠돌며 풍경들을 기록했다. 어쩌면 그 장소들이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나로서는 아직 알 수 없는 국가라는 존재의 일면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을 보려고 하나요 공기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공개를 없애보는 것이다. 숨 막히는 고통을 느끼면 그 누구도 공기의 존재를 부정하진 못할 것이다. 언제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의 부재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 관찰을 통해 그 정체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홍진원(2015), 「제주, 오키나와, 밀양 그리고 후쿠시마」, 『황해문화』 86, p. 179).

본에 국한하지 않는 다양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변부의 삶과 연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후쿠시마의 정동을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이 발전되어 간 과정은 크게 두 과정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후쿠시마 정동은 재난 이후 형성된 정동의 정치라는 맥락으로 흡수된다. 정동의 혼돈은 안전을 되찾고, 재현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일관된 서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된다. 이 과정에서 후쿠시마 정동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차이들은 고향과 연대, 죄의식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윤리적 체제 안에서 소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소멸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펴본 후쿠시마 재난 이후의 마을 풍경에서 보여주는 소멸되지 않은/소멸될 수 없는 재난의 지속성 때문이다. 사진들이 구성하는 정동적 분위기는 재현할 수 없는 것을 서사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정동의 새로운 정치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 3.3. 행성적 분위기의 출현

앞서 살펴본 후쿠시마 재난의 영토화와 탈영토화는 근본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떠나서 상상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재난의 탈영토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한 정주하의 사진전은 제목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다. 이는 식민지화된 한국의 과거와 일본 내부의 식민지로서 후쿠시마를 연결하는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적 시각이 노정되어 있다. 홍진훤의 사진도 한국과 일본, 대만의 주변부를 연결함으로써 타자의 정치라는 시선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재난은 다시 주변부 지역으로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된다.

이러한 관점들 곁에서 후쿠시마를 행성적인 사건으로 규정하는 시도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행성적 분위기로 재난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재난의 사건성(eventfulness)을 적극적으로 정동화하는 관점이다.<sup>38)</sup> 그것은 후쿠시마가 지닌 장소의 특이성을 지우지 않으면서, 동시에 후쿠시마라는 기호를 행성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시도들이다.

예를 들면, 우카이 사토시는 재난의 영토화의 논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그들’이라는 이분적 논리로 귀속되는 것을 비판한다.<sup>39)</sup> 우리-그들의 논리는, 후쿠시마를 희생, 회복, 그리고 국가적 재건이라는 잘 알려진 일본의 전후 서사로 회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그는 재난에 대한 관점을 행성적 관점과 지구적 관점을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글로벌한 지구 세계라는 말에 대해서도 비판적 관점을 취한다. 여기서 그는 행성적인 것을 차이의 운동으로 구성된 열린 전체로 상정한다. 그것은 글로벌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글로벌이라는 단위 자체가 국가라는 단위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반면에 행성적 분위기란 모든 종류의 경계와 봉쇄 논리를 가로지르고 그것의 주변을 순환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건, 후쿠시마에 있건, 도쿄에 있건, 행성의 어디에 있건 간에 재난으로부터 정동된/전염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0)</sup>

이 글에서는 행성적 분위기로 후쿠시마와 연결하는 과정을, 박솔뫼의 소설들, 즉 「어두운 밤을 향해 흔들흔들」(2014), 「우리는 매일 오후에」(2012), 「겨울의 눈빛」(2013)<sup>41)</sup> 등 작가가 고백하고 있듯, 후쿠시마 이후

38) Christophe Thouny(2017), “Planetary Atmosphere of Fukushima: Introduction”, *Planetary Atmospheres and Urban Society After Fukushima*(Thouny, Christophe · Yoshimoto, Mitsuhiro Eds.), Palgrave Macmillan, p. 2.

39) Ukai Satoshi (2017), Cristophe Thouny trans., “Dying Wisdom and Living Madness: A Comparative Literature of the Errant Star”, *Planetary Atmospheres and Urban Society After Fukushima* (Thouny, Christophe · Yoshimoto, Mitsuhiro Eds.), Palgrave Macmillan.

40) Christophe Thouny(2017), op.cit p. 5.

후쿠시마의 관련성 속에서 창작된 작품들에서 찾고자 한다.

박솔피의 이 소설들은 부산 인근에 자리한 고리 원전이 폭발한 이후의 폐허로 변한 삶을 상상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소설에서 특이한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재난 민족주의와 연관된 정동의 정치와는 판이한 전개를 보인다는 점이다. 부산이라는 도시가 원전 폭발로 폐허가 되어 버린 가상현실 속에는 여느 재난 내러티브에서 자주 등장하는 피해 당사자들과 외부의 사라들 사이에 형성되는 모종의 감정적 동화 또는 피해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리적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감정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한 폐허의 삶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동체도 가족도 존재할 수 없는 땅에서 주인공들은 단지 주어진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뿐 진정한 삶의 관계성들은 부재한다. 따라서 소설들은 재난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무의식적인 공포와 실존적 무기력감을 동반하는 특이한 정동적 분위기가 형성하지만, 이는 지역과 국가라는 이름으로 호명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소설들은 재난을 행성적 분위기로 이끌어간다고 말할 수 있다.

고리원전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은 부산을 떠나거나 한국을 떠났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살던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높은 빌딩은 순번을 돌아가며 밤에 조명을 켜지 않게 되었다고 해야 할지 하기로 했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었다. 사고 이후 빛나는 야경 같은 것을 보면 아 우리는 저런 것을 위해서였어요. 아 우리는 저런 것을 위해서였어요? 하고 한숨을 쉬거나 묻게 되고 그것은 아주 씁쓸하기도 고개를 젓게도 했지만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런 것을 위해서였어요 바로 저런 것을 위해서였다고요 저런 것이 좋았고 비교할 수 없이 좋아요 하고 말했다. 저것보다 더 반짝일 수 있다면 더욱더 그것을 위해

41) 박솔피(2017), 『겨울의 눈빛』, 문학과지성사.

더욱더 무언가를 했을 겁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들어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밤이 낮처럼 환기 위해 무언가를 흘리고 멈추고 웃어버리는 것은 그것대로 어떤 나름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말했다. 그 사람은 아주 피곤하고 추워 보였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남은 힘을 간신히 짜내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두운 밤을 향해 흔들흔들」)

원전사고가 만든 풍경을 상상하는 동안, 명확한 생각과 주체의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폐허의 풍경은 정동적 분위기로 존재할 뿐이다.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만연한 사람들의 텅 빈 내면은 모호한 문장들과 맞물려 강화된다. 재난 이후의 삶 속에서 주체화할 수 있는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인격적인 상태로 남겨진 집합적인 정동으로 표현된다. “피곤하고”, “춥고”, “쓰쓸하고”, “힘없는” 주체들이 태어난다. 소설 속에서 부산타워를 사람들이 그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그리는 무의미한 작업이며 재난 상상력과 결합하곤 하는 어떤 종류의 영토적 기획과도 결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정동적 분위기는 생명의 재생력과 힘을 증명하는 과학적 담론으로부터도, 생명의 의미를 생명의 관계망으로 설명하려는 대안적인 생태서사로부터도 탈구된다. 다음은 주인공이 우연히 만난 남자의 이야기다.

움직이는 식물로 시작한 남자의 이야기는 생명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넘어갔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공식인가를 말했다.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주인공은 그의 어떤 이야기에든 감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도달한다. 이미 재난의 주체들은 죽음의식과 무기력에 마비된 신체들로서, 그 어떤 것도 감응할 수 없는, 따라서 정동할 수 없는 신체로 변형된 것이다. 이러한 주체의 상태는 남자와 주인공 나를 특정

할 수 있는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도 연관된다. 재난 이후의 존재들인 그들에게는 특별한 이름도 정체성도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모든 공간이 살아 있는 의미가 제거된 삶의 공간이자 비인격적인 공간으로 변해버린 폐허에서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준다. 무기력감이 만드는 정동적 분위기는 이 소설의 내용이자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주체와 시공간의 모호성은 이 소설의 재난 상상력을 행성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체성을 상실한 존재들이 생성시키는 정동적 분위기는 그녀의 다른 소설 「우리는 매일 오후에」(2012), 「겨울의 눈빛」(2013)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구체적인 삶의 특징들이 제거된 재난 이후의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물을 수 없다. 방사능 재난은 국가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국한시키려는 모든 노력들이 그 자체로 헛된 것임을 증명한다. 재난의 안과 밖을 우리-그들의 논리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바로 그 점에서 박솔피 작가는 익숙한 재난 내러티브에서 이탈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녀의 소설들이 민족주의적 재편과 재난 유토피아적 공동체로의 회귀 등 다양한 영토적 상상력들로 환원되지 않는 이유이다. 박솔피의 비인격적 재난 상상력은 일본의 후쿠시마와 공명하면서도 지구적 감성으로 전환하는 미적 실험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이유는, 후쿠시마가 재난의 영토성을 넘어 행성적 분위기로 새롭게 생성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박솔피 작가는 원전폭발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을 통해 문명의 발전이 재앙으로 변해버린 세계에서 인간이 인간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묻는다.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러한 재난 상상력은 후쿠시마 정동이 행성적 분위기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 또한 이러한 행성적 분위기, 즉 비인격적인 정동의 집합 속에서 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특이성’으로서의 주체성을 향하는데, 이는 특정한 정체성을 지니지 않은 주체와 공

동체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가령 그것은 “비고유하고 무의미한 개체성” 이자 “어떤 정체성 없는 특이성을 통해” “주체도 전제도 없는 공동체”를 상상하려는 아감벤<sup>42)</sup>의 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다. 후쿠시마 정동이 영토적 상상력과 정치로부터 벗어나, 개인화된 감정들로부터도 벗어나 행성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대안적인 정동적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희망이 없는 불가능성의 정동적 분위기는 재난 이후의 삶 자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정동의 글쓰기는 새로운 정동이 생성되는 곳이라는 역설이 형성된다. 이는 후쿠시마의 사건성이 어떤 대안적 가능성을 열어놓는가를 탐색하고자 할 때 반드시 짚어볼 문제일 것이다.

#### 4. 나오는 말

후쿠시마 이후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에서는 특정한 정동(affect)이 형성됐으며, 이러한 후쿠시마 정동이 사건성(eventfulness)으로 생성된 과정을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성이란 사건 그 자체가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구성한 기존의 해석틀을 넘어서거나 흘러넘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후쿠시마라는 사건이 물질적, 비물질적 관계들을 개혁하고 기존의 관념들을 거부하는 정동적 함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은 이러한 사건성을 후쿠시마 정동이 지닌 두 층위, 영토화된 정동의 정치와 새롭게 출현하는 정동의 정치를 분석했다.

또한 이 글은 후쿠시마 재난의 사건성은 후쿠시마를 미학적 대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재현되지 못한 정동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창조하는 미학적 담론화 과정에 주목했다. 후쿠시마 이후 환동해 시민사회에서 일어난

42) 조르조 아감벤(2014), 이정진 역, 『도래하는 공동체』, 꾸리에, p. 92.

정동적 변화와 사회적 실천들의 동인을 고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후쿠시마가 촉발한 정동의 복잡한 생성 과정을 ‘후쿠시마 정동’으로 명명하고, 문학과 다큐, 영화 등의 다양한 미학적 실천(한국과 일본)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후쿠시마 정동의 방향은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상황에 따라 차이를 드러냄과 동시에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형됐음이 밝혀졌다. 일본에서는 재난 직후에는 혼란스러운 정동을 표현하는 정동의 생산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후쿠시마 정동은 국가적-지방적 재난의 감정으로 환원하거나 재코드화하는 과정이 존재했다. 이는 정동의 정치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후쿠시마에 대한 국가적, 민족적 재편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재난 직후보다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재난 이후의 과정에서 정동화 과정이 더 도드라졌다. 후쿠시마를 촬영한 사진들이 보여주는 재난의 이미지는 영토화하는 재난의 상상력을 다시 탈영토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행성적 분위기 속에서 재난 이후의 삶을 표현한 작품들도 등장했다. 특히 이 글은 행성적 분위기로서의 정동의 생산을, 재난의 상상력이 새로운 정동적 정치의 가능성과 만나는 지점으로 사유했다. 이는 새로운 주체와 시공간의 출현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후쿠시마의 사건성을 제고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이 글은 환동해 시민사회의 변화 지점들을 사유하고자 했다. 즉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에서 후쿠시마 재난 이후 미세하게 혹은 전면적으로 서로 감응하면서 재난에 대한 공통된 기호를 생산하고 공유해 가는 과정을 고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분명한 후쿠시마 재난의 정동들은 어느 쪽으로든 정착될 수 있다. 국가화하거나 민족화하는 시선들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영토적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행성적 관점에서 공통된 것으로서 후쿠시마를 의미 있게 생산해내려는 노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들이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탈핵 운동과 같은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에서 구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글은 많은 한계점들을 안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형성된 후쿠시마의 정동이 지닌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작품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실제 환동해 시민사회에 대한 확대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미학적 실천을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실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발전시켜 나아가려 한다.

## 참고문헌

### 【자 료】

- 나카무라 마유 감독(2014), 《나 홀로, 후쿠시마(ナオトひとりっきり)》, 일본.  
 텐도 아라타(2017), 송태욱 역, 『문나이트 다이어리』, 현대문학.  
 박솔피(2017), 『겨울의 눈빛』, 문학과지성사.  
 박정우 감독(2016), 《판도라》, 한국.  
 소노 시온 감독(2012), 《희망의 나라희망의 나라(希望の国)》, 일본.  
 쓰시마 유코(2011), 양윤옥 역, 「불곰의 조용한 바다」, 『자음과 모음』 14.  
 이와이 순지 감독(2011), 《311: 이와이 순지와 친구들》, 일본.  
 이흥기 감독(2015), 《후쿠시마의 미래》, 한국.  
 홍진훤(2015), 「제주, 오키나와, 밀양 그리고 후쿠시마」, 『황해문화』 86. [《붉은, 초록. 2012-2014》([http://jinhwon.com/work\\_02.php](http://jinhwon.com/work_02.php))].  
 Hiromi Kawakami (2012), Ted Goossen & Motoyuki Shibata trans., *God Bless You, 2011*, Granta 118: Exit Strategies (The Online Edition). [川上弘美 (2011), 「神様2011」, Tokyo Kōdansha.] accessed on 2018. 3. 31. <https://granta.com/god-bless-you-2011>.

### 【논 저】

- 권태형 · 장현주 · 전영준(2016), 「원전 관련 신문 사설의 담론 네트워크 분석: 후쿠시마 사고 전후의 비교」, 『행정논총』 54(3).  
 김경인(2016), 「시인의 ‘상상력’과 원자력村의 ‘想定 外’: 와카마쓰 조타로(若松丈太郎)의 詩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69.  
 김진호 외(2012),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 갈무리.  
 김태경(2014), 「3.11 동일본대진재와 문학」, 『세계문학비교연구』 48.  
 서경식 외(2016), 형진의 역, 『다시 후쿠시마를 마주한다는 것』, 반비.  
 윤순진(2015) 「반핵운동에서 탈핵운동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한국 탈핵운동의 변화와 과제」, 『시민사회와 NGO』 13(1).  
 조선령(2014), 「후쿠시마, 고리: 이미지와 가시성의 정치학」, 『문화과학』 79.  
 최수임(2015), 「세계-몸을 쓰는 영상-증언으로서의 다큐-매체성: <쓰나미 후에

- 오는 것들>과 ‘겨울의 눈빛’: 장-뤽 낭시 ‘영화의 증거’의 관점에서, 『영상예술연구』 36.
- 한영혜 외(2013), 『현장에서 바라본 동일본대지진: 3·11 이후의 일본 사회』, 한울아카데미.
- 한홍구·서경식·다카하시 데스야·이령경(2013), 이령경 역, 『후쿠시마 이후의 삶: 역사, 철학, 예술로 3·11 이후를 성찰하다』, 반비.
- 허정(2014), 「후쿠시마 원전재난 이후의 한국사」, 『동남어문논집』 38.
- 사토 요시유키(2014), 김상운 역,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의 상황과 안전 권력: 저선량 피폭을 둘러싸고」, 『실천문학』 115.
- 가타리, 펠릭스(2003), 윤수중 역, 『세 가지 생태학』, 동문선.
- 그레그, 멜리사·시그위스, 그레고리 J. 편(2015),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정동 이론: 몸과 문화·윤리·정치에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갈무리.
- 네그리, 안토니오·마이클 하트(2014), 정남영·윤영광 역, 『공통체』, 사월의 책.
- 아감벤, 조르조(2014), 이정진 역, 『도래하는 공동체』, 꾸리에.
- 질 들뢰즈·서창현·김상운 외 (2005), 자율평론번역모임 역, 『비물질노동과 다중』, 갈무리.
- Chizuko Ueno (2016), “A Twisted Alliance- Neo-Liberalism, Neo-nationalism and Backlash”, 『도시인문학연구』 8(2).
- Anderson, Ben (2009), “Affective atmospheres”, *Emotion, Space and Society* 2-2.
- Massumi, Brian (2015), *Politics of Affect*, Wiley Academic (e-book).
- \_\_\_\_\_ (2011), “Disasters and Extreme Weather Opinion: The Half-life of Disaster”, *The Guardian*, accessed on 2018.3.31.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1/apr/15/half-life-of-disaster>.
- \_\_\_\_\_ (2002), “The Autonomy of Affect”, *Parables for the virtual : movement, affect, sensation*, Durham, NC : Duke University Press, pp. 23-45.
- Nancy, Jean-Luc (2015), *After Fukushima: the equivalence of catastrophes*, Fordham University Press.
- Roelvink, Gerda (2010), “Collective action and the politics of affect”, *Emotion, Space and Society* 3(2).
- Samuels, Richard J. (2013). *3.11: Disaster and Change in Japan*. Cornell

University Press.

Shindo, R. (2015) “Enacting citizenship in a post-disaster situation: the response to the 20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Citizenship Studies* 19(1).

Thouny, Christophe · Yoshimoto, Mitsuhiro (Eds.) (2017), *Planetary Atmospheres and Urban Society After Fukushima*, Palgrave Macmillan.

Thrift, Nigel (2004), “Intensities of Feeling: Towards a Spatial Politics of Affect”,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86(1).

원고 접수일: 2018년 4월 8일

심사 완료일: 2018년 4월 30일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2일

ABSTRACT

---

Imagination of Disaster and Aesthetic Politics of Affect:  
In the Light of Changes of Civil Society in East Sea Rim after Fukushima

Shin, Jin-Sook\*

The Fukushima catastrophe marks a turning point in which the civilian use of nuclear reactor technology in East Sea Rim, including Korea and Japan, came to be reconsidered. As with Chernobyl in 1986,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led to ques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politics, society, capitalism, and the environment. Furthermore, the Fukushima accident implicitly and explicitly transformed the structure of affect in Korean and Japanese civil society. Indeed, given that a specific vital affect can trigger the defying of established conceptions and the reforming of diverse material and immaterial relations, we have to comprehend the performative courses of affect in which Fukushima itself becomes the eventfulness. Here, the eventfulness means the state in which the event itself overflows and exceeds any established interpretations and representations with respect to the catastrophe. In addition, we have to understand the fact that Fukushima forms a planetary atmosphere traversing and superposing local, national and global dimensions or projects; that is, for instance, the different aesthetical practices have capacities through

---

\* HK Professor, Institute of Global Affairs, Kyung Hee University

which the planetary atmospheres are singularly emerged.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expressing the disaster as an aesthetical affective atmosphere that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typical emotions of Fukushima. It i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forming of affective communities in the East Sea Rim, after Fukushima.

